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3	4	5	6	7	8
1주	한국 수출, CPI, 미국 ISM 제조업, 고용보고서 ① 한국 7월 수출/입(1일) 6월 수출 YoY 70.9%, 수입 YoY 30.1% ② 미국 7월 ISM 제조업(3일) 6월 ISM 제조업 PMI 53.3 ③ 한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4일) 6월 CPI YoY 3.2% MoM 0.1% ④ 미국 7월 고용보고서(7일) 6월 비농업고용 5.7만, 실업률 4.2%	한국 수출/입 YoY(1일) 7월 무역수지(1일) 7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7월(최종) S&P 제조업 PMI 7월 ISM 제조업 PMI 6월 건설지출 MoM 실적 (예정) DB하이텍, 풍산, 아모레퍼시픽 실적 팔란티어	한국 CPI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6월 무역수지 6월 JOLTS 구인 건수 6월 제조업 수주 MoM 6월(최종) 내구재 수주 MoM 실적 한화, 에코프로, 카카오페이, 강원랜드 실적 AMD, 캐터필러, 머크앤컴퍼니, 암젠 아리스타 네트워크, 맥도날드, 화이자 시게이트, 듀크 에너지, 스타벅스	7월 외환보유액 7월 레이팅독 서비스업/종합 PMI 6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7월 ADP 고용 변화 7월(최종) S&P 서비스업/종합 PMI 7월 ISM 서비스업 PMI 실적 카카오톡, 롯데칠성음료 실적 샌디스크,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월트 디즈니, 쇼피파이, 우버, 애플	6월 소매판매 MoM 6월(최종) 도매 재고 MoM 실적 카카오, CJ ENM (예정) SK텔레콤, 에스엠, 에이피알 실적 토요타, 길리어드, 소니	미국 고용보고서 7월 수출/입 YoY 7월 무역수지 7월 외환보유액 7월 고용보고서 공개 - 비농업고용, 실업률, 임금상승률 등 공개 갤럭시 S28 시리즈 정식 출시 실적 네이버, 파마리서치, 롯데케미칼 (예정) 미래에셋증권, KT&G, 원익IPS 실적 버크셔 해서웨이, 엑슨 모빌	8월 전망 반도체 산업과 수급 왜곡의 영향으로 급단적 변동성을 경험. KOSPI PER은 5.7배 영역까지 진입하며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확대. 변동성의 근간은 확인되고 있는 숫자보다 AI CAPEX와 반도체 수급에 대한 경제심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8월 초까지 빅테크 실적 발표 등 일련의 이벤트를 통한 신뢰도 제고 시 회복 흐름 지속을 기대 가능. 이외에 연준 정책 경로, 중동 긴장과 유가 향방, 국내 수급 구조 등의 변수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주	9 미국 CPI, PPI,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①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12일) 6월 CPI YoY 3.5% MoM -0.4% ② MSCI 분기 리뷰(12일) 리뷰 결과에 따른 주가 변동성 유의 ③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13일) 6월 PPI YoY 5.5% MoM -0.3% ④ 미국 8월(잠정) 미시간대 기대인플레(14일) 7월(잠정) 단기 4.2% 장기 3.3%	10 중국 물가발표 6월 경상수지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9일)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9일) 실적 (예정) 삼성증권, 신세계, LG유플러스 회의 RBA 통화정책회의(~11일)	11 일본 산의 날 휴장 8월 수출/입 10일까지 YoY 7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7월 기준주택매매 실적 NHN, CJ제일제당, 펄어비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휴장 일본(산의 날)	12 미국 CPI 7월 실업률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실적 (예정) 한국전력 발표 MSCI 분기 리뷰 실적 시스코 시스템스	13 미국 PPI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중시 한국 옵션 만기일 실적 달바글로벌 실적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4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7월 수출/입 물가지수 YoY 2분기(2차) GDP YoY 7월 소매판매 MoM 8월(잠정)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8월(잠정) 미시간대 단기/장기 기대인플레 실적 현대해상 행사 디즈니 D23 엑스포(~16일)	15 미국 물가지표 발표 미국 6월 CPI 예상치 하회. 에너지의 하방 견인력을 제외하고도 대부분 항목에서 안정세가 나타난 가운데, 미 연준 인상 확률 상승세는 되돌려지는 모습. CPI에 이어 미국 6월 PPI도 예상치 하회. 재화 가격은 지난 2022년 7월(-1.9%)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 케빈 해시 NEC 위원장은 향후 이러한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다만 워시 의장은 "이번 CPI만으로 물가 안정이 달성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
3주	16 미국 광공업생산, S&P 글로벌 PMI ① 미국 7월 광공업생산(18일) 6월 광공업생산 MoM 0.1% ② FOMC 회의록 공개(현지시간 19일) 연준 내 금리 결정 기조 확인 ③ 미국 S&P 글로벌 PMI(21일) 7월 S&P 글로벌 PMI 잠정치 미발표 ④ 미국 옵션 만기일(21일) 만기일 도래에 따른 변동성 유의	17 한국 광복절 대체휴일 휴장 2분기(잠정) GDP YoY 6월(최종) 광공업생산 MoM 7월 광공업생산 YoY 7월 소매판매 YoY 7월 실업률 8월 뉴욕 제조업 지수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실적 팔로알토 휴장 한국(광복절 대체휴일)	18 8월 ZEW 경기기대지수 7월 수출/입 물가지수 YoY 7월 광공업생산 MoM 7월 미결주택매매 7월 주택착공건수 8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지수 실적 홈디포	19 FOMC 의사록 공개 6월 핵심기계수주 MoM 7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공개 FOMC 의사록 실적 아날로그 디바이스	20 7월 수출/입 YoY 7월 무역수지 7월 경기선행지수 8월 필라델피아 연준 기업전망지수 실적 월마트	21 미국 옵션 만기일 8월 수출/입 20일까지 YoY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7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8월(잠정) 소비자지대지수 8월(잠정) S&P 제조업 PMI 8월(잠정) S&P 서비스업/종합 PMI 중시 미국 옵션 만기일	22 8월 금융통화위원회 7월 금융위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 결정 (만장일치). 7월 통방문은 이전 대비 매파적으로 변화. 기자회견은 우려보다는 완화적. 신현승 총재는 8월 인상 여부를 단언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 2분기 GDP 및 GDI, 7월 근원물가, 생활물가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첨언. 8/27 회의는 수정 경제전망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인상 시그널과 전망치 변동 여부 확인 필요
4주	23 엔비디아 실적, 미국 PCE, GDP, 한은 금통위 ① 엔비디아 실적발표(현지시간 26일) 컨센서스 매출 917.5억달러, EPS 2.14달러 ② 미국 7월 PCE 물가지수(26일) 6월 PCE 물가지수 미발표 ③ 미국 2분기(2차) GDP 연간화(26일) 1분기(3차) GDP 연간화 QoQ 2.1% ④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27일) 직전 회의에서 25bp 인상 결정(만장일치)	24 7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 행사 핫 칩스 2026(23일~25일) 실적 PDD홀딩스	25 8월 소비자심리지수 8월 CB 소비자신뢰지수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7월 신규주택매매 8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지수 8월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지수 행사 EV 트렌드 코리아 2026(~27일)	26 엔비디아 실적 7월 개인소득 MoM 7월 개인소비지수 MoM 7월(잠정) 내구재 수주 MoM 7월 PCE 물가지수 YoY 7월 근원 PCE 물가지수 YoY 2분기(2차) GDP 연간화 QoQ 행사 독일 게임스컴(~30일) 실적 엔비디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27 한국은행 금리 결정 7월 산업생산 YoY 7월(잠정) 도매 재고 MoM 회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연준 잭슨홀 미팅(~29일) 실적 델 테크놀로지스, 마벨 테크놀로지	28 7월 실업률 8월 도매 소비자물가지수 YoY 8월(최종) 소비자지대지수 8월(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8월(최종) 미시간대 단기/장기 기대인플레 8월 MNI 시카고 PMI 학회 유럽심장학회 ESC 2026(~31일)	29 엔비디아 실적 현지시간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 5월 실적 발표 당시 매출액·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 상회. 주력 사업인 데이터센터 실적에서도 지속적인 성장 가속화를 보여줌. 국내 증시에 엔비디아 호실적 영향에 견조한 AI 수요 확인하며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위주로 상승을 경험함. 컨센서스는 매출 917.5억달러, EPS 2.14달러로 형성. 직전 분기 실적은 매출 816.2억달러, EPS 1.87달러로 발표
5주	30 독일 게임스컴, 연준 잭슨홀 미팅 ① 독일 게임스컴(26~30일) 크래프톤, 펄어비스, 엔씨소프트 등 참여 ② 연준 잭슨홀 미팅(27~29일) 연준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동 여부 주시	31 7월 광공업생산 YoY 7월 소매판매 YoY 7월(잠정) 광공업생산 MoM 8월 제조업/비제조업/종합 PMI 8월 달러수 연준 제조업활동지수 회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9/1)	8월 주요 일정 RBA 통화정책회의(10~11일) MSCI 분기 리뷰(12일) FOMC 의사록 공개(19일) 퀵론 GAMESCOM(26~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27일) 연준 잭슨홀 미팅(27~29일) 중국 베이징 대화 회의(8월 중)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8월 중) 한국 2027년 예산안/세계개편안 발표(8월 중)	9월 주요 일정(1) 연준 베이징북 공개(2일) 독일 IFA 2026(4~8일) K-배터리쇼 2026(9~11일) ECB 통화정책회의(9~10일) 한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10일) BRICS 정상회담(12~13일) 미국 FOMC(15~16일) 독일 IAA Transportation 2026(15~20일) BOE 통화정책회의(17일)	9월 주요 일정(2) BOJ 금융정책위원회(17~18일)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18일) 메타 커넥트 2026(23~24일) UN 총회 일반토의(22~28일) 미국 2027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기한(30일)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9월 중)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9월 중) FTSE 러셀 분기 리뷰(9월 중)	8월 주간 경제지표 주간 원유재고 [EIA(에너지정보청)] 주간 주택용자신청사주 [MBA]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노동부] 월간 원유시장보고서 [EIA(에너지정보청)] 30년물 고정모기지금리 [프레디맥] 미 연준 대차대조표 보고 [FED] 주간 원유 채굴장비수 [베이크어휴즈] 어닝 인사이트(팩트셋) KB 주택시장동향 [KB국민은행]	연준 잭슨홀 미팅 2026년 주제는 "금융 혁신: 경제와 정책에 대한 함의". 케빈 워시가 포워드 가이드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데다, 8월에는 별도 FOMC가 없어 이번 잭슨홀 미팅이 향후 통화정책과 금리 방향에 대한 핵심 힌트를 제공하는 자리로 부상할 전망. 인선이 완료된 5대 TF와 관련해서도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대한 힌트 등이 등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 당장 통화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관심보다 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이 높을 듯

일자	지역	중요도	이벤트	내용
8/1	한국	상	7월 수출	6월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초과.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달러 달성.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증가한 448.2억달러를 기록하며 월 400억달러를 돌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모습으로 190% 넘게 급증. 전체 수출 규모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17.8%p 상승 - 하반기 전망에서 제시했던 수출 연간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 특히 반도체의 견조한 수출이 국가 경제성장과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일 소재로 평가
8/12	글로벌	중	MSCI 8월 분기 리뷰	- 분기 리뷰는 2월, 5월, 8월, 11월에 진행되며, 편·출입 종목 선정 시에는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이 주요 지표로 사용됨. 8월 리뷰는 12일에 편·출입 결과 발표 예정이며, 8월 말일 장 마감 이후 리밸런싱, 9월 1일부터 지수 변경 유효 자금이 유입될 예정 - 한국 증시 반도체 쏠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 이벤트의 가시적인 효과나 관심도가 다소 약해진 면모. 하지만 편입/편출 종목들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강함. 남은 기간 동안의 시총 변화 등에 따라 가변적이나 LG이노텍이 편입 가능군으로 분류 중
8/26	미국	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 현지시간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 5월 실적 발표 당시 매출액·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 상회. 주력 사업인 데이터센터 실적에서도 지속적인 성장 가속화를 보여줌. 국내 증시도 엔비디아 호실적 영향에 견조한 AI 수요 확인하며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위주로 상승을 경험함 - 컨센서스는 매출 917.5억달러, EPS 2.14달러로 형성. 직전 분기 실적은 매출 816.2억달러, EPS 1.87달러로 발표
8/27	한국	상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은 7월 금통위에서 2023년 1월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사전적으로 수요측 요인에 의한 단발성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던 만큼 시중 금리 상방에 영향을 줄 만한 충격 요인은 아니었음 - 주목할 포인트는 세 가지. 첫째, 5월과 달리 경제 개선이 물가 상승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며 정책 주안점이 외생적 물가 부담에서 수요로 이동. 둘째, 인상을 '기조적'이라고 표현해 단발성 대응에 그친 여타 중앙은행과 달리 추가 인상을 시사. 셋째, 매파적 톤 속에서도 내부 논의는 5월 점도표(연내 2회+1회 추가 가능성)에 부합한다고 언급. 종합하면 '2+1' 인상 경로가 기본 전망이며, 수요 둔화 근거가 확인될 경우 기조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음 -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7~8월 백투백 인상과 4회 이상 인상 현실화. 7월 수입물가 안정으로 백투백 인상 우려는 완화된 상황이나 최근 유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8월 금통위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형성될 개연성이 있음
8/27~29	미국	상	연준 잭슨홀 미팅	2026년 주제는 "금융 혁신: 결제와 정책에 대한 함의". 6월 16~17일 케빈 워시의 첫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4연속 동결. 취임 초 금리 정책에 있어 전향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으나, 전쟁 발 유가 압력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구간이었던 만큼 회의 결과는 매파적 톤. 정책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전임 의장과는 소통 측면에서 확실히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음 - 케빈 워시가 포워드 가이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언급했던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잭슨홀 미팅은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핵심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음. 지난 FOMC 이후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대차대조표 등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 5개 분야에 대해 TF를 구성하고 인선을 발표한 상황. TF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대한 힌트 등이 등장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 당장 다음 회의의 금리 인상/인하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하기 보다는 정책 기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